



즉시 배포용: 2023년 11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전역의 병원에 대한 사이버 보안 규정 제안 발표

*5억 달러 규모의 의료 정보 기술 기금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최고의 규제 제안, 뉴욕주의
사이버 보안 전략 개선*

*병원이 환자 치료 및 의료 정보 보호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의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개선*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전국을 주도하는 주 차원의 병원 사이버 보안 규정을 발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주 병원들이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는 의료 시설이 제안된 규정에 따라 기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5억 달러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호 연결된 세상에는 특히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상호 연결된 방어가 필요합니다. 새로 제안된 규정은 뉴욕주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최고의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환자 데이터 및 건강 기록 보호에 초점을 맞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보안 규칙을 보완하기 위해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병원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병원은 제안된 조항에 따라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검증된 조치를 취하여 내부 및 외부 사이버 보안 위협을 평가하고, 방어 기술 및 인프라를 사용하고, 무단 액세스 또는 기타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는 조치를 구현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뉴욕주는 의료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사이버 방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병원을 보호하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최고의 사이버 보안 병원 규정 초안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중요한 시스템을 보호하고 뉴욕의

병원과 의료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지사의 주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병원이 관련 당사자에 대한 알리를 포함하여 잠재적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병원은 시스템이 정상 운영 상태로 복원되는 동안 환자 치료가 계속되도록 대응 계획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각 병원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서면 절차, 지침 및 표준을 포함하여 시설에서 사용할 사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관행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외부 개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을 평가, 평가 및 테스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하기 위해 병원에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 역할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제안된 규정은 외부 네트워크에서 병원의 내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다중 요소 인증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5억 달러의 자금은 주지사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되었으며 곧 시작될 예정인 주 전체 자본 프로그램 신청 모집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의료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고급 임상 기술, 사이버 보안 도구, 전자 의료 기록 및 기타 기술 업그레이드를 활용하여 치료의 질, 환자 경험, 접근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번 주 공중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에서 채택될 경우 이 규정은 12월 6일에 주 등록부에 게시되며 2024년 2월 5일까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 확정되면 병원은 1년 동안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욕주 최고 사이버 책임자 **Colin Aher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도 아래 보건부는 주 전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사이버 보안 규정 초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초안은 Hochul 주지사가 8월에 발표한 주 전체 사이버 보안 전략을 기반으로 합니다. 병원이 점점 커지는 사이버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병원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규정 초안과 재정 지원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주 전역의 병원의 향상된 사이버 방어 및 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확정하기 전에 향후 60일 동안 대중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미국 재무부, 연방 수사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은 병원이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며 일부 뉴욕 병원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환자의 이탈 및 시설 취소부터 중요한 서비스의 속도를 늦추는 전자 기록에서 종이 기록으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병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Hochul 주지사는 최근 오늘날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뉴욕주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최초의 주 전체 [사이버 보안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에게 사이버 위험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중요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 및 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Jackie Bra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은 매우 중요하며, 뉴욕은 이러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식적인 규정을 도입하여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국가의 다른 주들이 따라야 할 사이버 보안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최고정보책임자인 **Dru Rai**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정교해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리 병원을 보호하는 것은 뉴욕의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주 전체 접근 방식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주지사와 기관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며, 주 병원들이 자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하여 뉴욕 전역에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와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통일된 지침과 자원을 제공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달 10월을 [사이버 보안 인식의 달](#)로 지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 대중을 참여시키고 교육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도구와 기타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사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전역의 [사이버 보안 강화에 관한 Hochul 주지사의 웹사이트](#), [ITS 최고정보보안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X\(이전 트위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NYSCyber\)](#)에서 이 기관을 팔로우하세요.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